

基調講演

國力培養과 國民의 科學化運動

科學技術處長官 崔 亨 燮

尊敬하는 全國의 教育者 여러분, 그리고 內外賓客 여러분!

오늘 우리는 大統領 閣下께서 提唱하신 “全國民의 科學化”를 위한 教育者로서의 使命을 깊이 自覺하고 科學立國을 위한 우리의 決意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 깊은 全國教育者大會에 本人이 參席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維新憲政의 礎를 맞이하여 大統領 閣下께서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을 提唱하셨고, “70年代 技術革新을 指向한 汎國民的인 努力”을 거듭 強調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姿勢와 方向을 다 같이 진지하게 論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周知하시다시피 오늘날은 科學技術의 時代입니다.

科學技術은 곧 國力이요, 國家發展의 原動力인 것입니다.

大統領 閣下께서도 앞으로 이 地球上에서 世界를 支配하는 民族은 땅덩어리가 큰 民族도 아니요 人口가 많은 民族이 아니라 科學技術이 남보다 빨리 發展하고 앞선 民族이 世界를 支配하는 民族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시고 우리가 땅이 적다, 地下資源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科學技術을 빨리 發展시켜 다른 民族보다 앞설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을 強調하셨습니다. 美國, 獨逸, 日本 그리고 英國 등 先進諸國이 오늘의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훌륭한 自然環境이나 與件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먼저 科學技術을 發展시켰기 때문입니다.

近日에 와서 이스라엘의 例를 보더라도 그들은 科學과 技術의 힘으로 砂漠을 開墾하여 沃土를 만들고 또한 自主國防을 훌륭히 擔當하고 있습니다.

東南亞諸國이나 南아메리카의 開發途上國들은 資源이 不足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豐富한 資源과 좋은 與件을 活用하는 科學과 技術이 없기 때문에 後進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科學技術의 重要性에 對해서는 더 強調할 必要가 없겠습니다. 人間의 달 着陸을 可能하게 한 宇宙開發, 새로운 資源을 探究하려는 海洋開發,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源으로서의 原子力開發, 눈부신 電子工學의 發展, 醫學의 發達과 人間生命 현상의 糾明, 새로운 代替資源의 開發 등 世界의 科學技術은 加速的으로 無限한 發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農林分野에서는 絕色革命을 이룩하고 交通通信 革命은 地球上을 一日 生活圈으로 短縮시켜 나가고 있으며, 生産施設은 自動化되고, 새로운 製品이 開發되어 世界市場을 席捲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科學技術은 人間의 來日에 無限한 可能性과 希望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技術革新과 科學競爭의 時代에 살면서 우리만이 어찌 이를 座視하고 祖上이 물려 준 가난과 與件의 不備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겨레가 지니고 있는 科學的 天稟과 素養을 啓發하여 우리 世代에 科學韓國의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다.

1. 60年代의 科學技術 基盤構築

多幸히 지난 60年代에 우리는 近代化와 經濟開發을 이룩하는 한편 大統領 閣下의 科學技術發展에 對한 熱意와 英斷에 힘입어 科學技術의 發展을 이룩하는 基盤을 構築하였습니다. 科學技術行政을 總括하는 科學技術處의 發足, 産業科學開發의 中樞機關인 韓國科學技術研究所의 設立, 高級科學頭腦의 養成을 위한 韓國科學院의 設立을 비롯하여 서울研究開發團地의 造成, 政府研究投資의 增大, 國際技術協力の 擴大, 科學하는 風土造成 등 많은 分野에 걸쳐 빠른 發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科學技術이 그 出發은 日淺하지만, 지난 10餘年間的 努力으로 이제는 開發途上國들 中에서는 模範的인 發展國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科學技術은 先進諸國과 比較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큰 格差가 있음이 事實입니다.

先進國들은 數百年에 걸친 科學知識과 人力의 蓄積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科學技術을 쌓았고, 繼續하여 科學技術開發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그 陰列에 參與하려면 그들보다 數十倍 以上の 努力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爲하여 가장 必要한 것은 우리의 精神과 意志 그리고 努力입니다.

그리하여 하루 速히 科學技術을 發展시켜 이를 바탕으로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하며, 모든 國民이 技術과 技能을 익히고 배워 全國土의 科學化, 全國民의 技術化로 잘 사는 나라, 生産하는 나라, 밝고 健康한 나라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2. 70年代 科學技術 振興施策

70年代 우리의 科學技術이 나아갈 方向을 먼저 要略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科學技術의 基盤을 繼續 構築하고,

둘째, 戰略産業技術의 開發을 積極化하며,

세째, 科學하는 나라, 技術하는 國民으로서의 科學技術風土를 造成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施策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科學技術의 基盤을 構築하여 나아가는 데는 頭腦開發과 技能의 熟達로 水準 높은 科學技術人力의 養成, 確保를 期하고 基礎的인 研究活動의 強化로 科學技術底力을 培養하며 發展하는 科學技術과 國內外 與件에 맞추어 制度和 體制의 整備를 期해 나아가감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頭腦開發과 技能熟達

質 높은 科學技術人力의 養成確保를 위하여는 高級頭腦의 開發과 生産性 높은 技能의 熟達이 重要합니다.

高級頭腦의 養成機關인 大學과 大學院은 그간 急進的인 量的 成長을 이룩하여 왔으나 質的인 面에서는 아직도 急變하는 科學技術發展이나 産業의 高度化에 對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政府는 落後되어 있는 理工系大學 및 大學院教育의 改革을 先導하고 産業技術開發의 主役을 擔當할 優秀頭腦를 養成할 目的으로 모든 大學과 大學院教育의 強化를 위한 諸般施策을 講究하여 나갈 것입니다. 大學과 大學院의 育成은 다른 것이 아니고 教授와 學生이 같이 研究하고 工夫하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敎科目講義에 偏重하던 教育에서 벗어나 研究가 即 教育이라는 大學本然의 姿勢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觀點下에서 政府는 大學 및 大學院의 質的 向上을 위한 方案의 하나로 先進外國에서 成功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美國의 國立科學財團과 비슷한 形態의 “科學技術財團”을 設立하여 大學의 研究活動을 圓滑히 支援하고, 研究가 國家産業發展에 副應할 수 있도록 大學의 目的 있는 基礎研究를 造成하며 大學의 研究活動에 對한 철저한 評價를 하게 함으로써 研究雰圍氣의 刷新을 期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資源과 資本이 不足한 우리의 與件下에서 産業의 高度成長과 輸出의 伸

全國民의 科學化를 위한

張을 期하기 위하여는 全國民의 一人 一技化를 目標로 “全國民의 科學化, 技能化”를 促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科學과 技能은 어릴 때 부터 익히는 것이 效果的이므로 靑少年의 早期教育이 強調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國民學校에서는 自然에 對한 觀察力과 科學의 思考方式에 關聯된 基本教育에 注力하며, 中學課程도 獨逸 등 先進國의 例와 같이 基本技能을 習得할 수 있도록 實技爲主의 教育體制로 改編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中學課程을 實技教育 爲主로 한다고 해서 莫大한 豫算과 施設이 必要한 것은 아니며, 또한 人格形成에 支障을 招來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體能教育에 있어 달리기, 뛰뛰기 등 基本動作이 體能向上의 基本인 것과 같이 技能教育에 있어서도 大規模한 施設이나 最新의 機器를 必要로 함이 없이 基本技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스”와 “줄”만 가지고도 機械製作이나 金屬加工에 있어서의 基本技能을 訓練시킬 수 있는 것이며 “톱”과 “데케”만 가지고도 木工의 基本技를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産業國家를 指向하는 國民은 人文系, 自然系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基本技能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方案의 하나로 政府는 現在 實施하고 있는 “體力章”과 類似한 制度로 各級學校에서 必히 익혀야 할 基本技能을 標準化한 “技能章制度”를 制定하여 이를 實施할 수 있도록 具體的 方案을 構想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全國民의 技能化를 期함에 있어서 技能者에 대한 社會的 地位向上이야말로 技能熟達의 要諦가 된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技能者를 輕視하는 傳統的인 社會風土에서는 工業立國을 期待할 수 없는 것입니다.

技能國家인 獨逸의 例를 들면 技能의 最高資格인 Meister를 獲得할 경우 電氣, 電子, 機械, 工藝 등 特定 業種의 營業權이 賦與될 뿐만 아니라 工場에 就職할 때에 좋은 待遇가 保障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技能者에 대한 傳統的인 觀念이 殘存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優待하여 技能蓄積의 더진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産業技術의 發展

우리 나라 産業水準은 그간의 工業化 推進過程에서 크게 向上되었지만 앞으로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여 100億弗 輸出目標을 達成하고 重化學工業의 建設을 推進하려면, 産業技術의 劃期的인 向上發展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開發途上國家의 産業開發 戰略은 첫째, 先進産業技術을 果敢하게 導入하고 導入된 技術을 우리의 것으로 消化 吸收하기 위한 自體의 研究活動을 強化하는 것이며,

다음은 工業發展에 있어 核心的인 戰略技術을 選定하여 이를 集中的으로 開發하고 그 效果를 全産業에 波及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産業技術開發의 主役은 어디까지 民間企業스스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産業技術開發에 있어서도 民間企業의 能動的인 役割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하여 政府는 強力한 誘導支援施策을 펴 나야 할 것입니다. 産業技術開發을 위한 政府의 主要施策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技術開發促進法과 技術用役育成法을 制定하여 民間産業界의 技術開發을 誘導, 支援하고 工場建設, 船塢建設 등 主要技術用役業務 등 國內技術陣에 의하여 遂行할 수 있도록 綜合施策을 펴 나갈 것이며,

둘째, 이제까지 우리 나라 産業技術開發의 中樞的인 役割을 擔當하여 온 韓國科學技術研究所의 業務를 分化發展시켜 船舶研究所 鑄物技術 센터, 精密機械設計 및 加工 센터, 綜合金型 센터, 海洋開發研究所 등 技術 및 資源을 擔當하는 開發研究機關들을 新設함으로써 새로운 專門技術分野의 需要에 對備하며,

셋째, 國公立研究機關들을 整備強化하여 大量生産과 製品의 品質向上의 先決要件인 標準化 및 檢査業務을 위한 機能을 強化하도록 하고,

네째, 80年代 우리 나라 科學技術發展의 一翼을 擔當할 또 하나의 (第二)研究學園都市를 10年計劃으로 建設할 計劃입니다.

이미 政府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를 中心으로 서울 洪陵一帶에 設置되어 있는 韓國科學院, 韓國開發研究院 및 韓國科學技術情報 센터 등의 研究所群을 集結시켜 第一研究團地를 造成하여 運營중에 있습니다.

現在の 科學과 產業技術은 한 가지 專門的 知識만으로 解決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分野의 科學者 技術者, 經濟學者 그리고 社會科學部門 專門家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팀·웍”을 이루게 하여 多分野間的 協同 研究가 이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들의 相互接觸機會를 擴大하여 知的 交流를 增大시키고, 研究施設 및 資料의 共同活用으로 研究의 効率性을 提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建設될 研究學園都市는 새로 建設될 研究所, 既存 國公立研究機關, 理工大學 또는 既存의 地方大學中 擴充移轉이 必要한 大學 또는 大學院이 入住하게 함으로써 知的 共同體를 形成하려는 것입니다.

科學技術 風土造成

이상 말씀 드린 頭腦開發이나, 技能의 熟達, 大學 및 大學院의 教育 및 研究의 強化, 그리고 產業技術開發을 위한 意慾의인 諸施策도 全國民이 呼應하고 能動的으로 參與할 때 所期의 成果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0年代 科學技術施策의 하나는 國民의 科學的 思考를 涵養하고 生活의 科學化를 이룩하기 위한 科學技術 風土造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 科學技術基盤의 構築
- 產業技術의 戰略的 開發

○ 科學技術 風土造成이 70年代의 施策方向의 要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라 科學技術의 位置와 앞으로의 方向을 念頭에 두고 오늘의 主題인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 全國民의 科學化運動

背景과 當爲性

大統領 閣下께서는 年初에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을 展開하자”고 하시면서 모든 國民이 科學技術을 배우고 익혀야만 우리의 國力이 急速히 늘어날 수 있고 科學技術의 發達없이 는 우리가 絕對로 先進國家가 될 수 없다고 強調하셨습니다.

그리고, 80年代에 가서 100億弗 輸出, 重化學工業의 建設 등 目標達成을 위해서 汎國民的인 科學技術의 開發에 總力을 集中해야 되겠으며, 이것은 國民學校 兒童에서 大學生, 社會成人까지 男女老少 할 것없이 우리 모두가 直接的 或은 間接的으로 技術을 배워야겠다고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을 提唱하신 것입니다.

全國의 教育者 여러분!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이야말로 維新理念의 國民生活에서의 俱現이며, 祖國近代化를 위한 指針이라 하겠습니다.

科學化運動의 背景과 그 必要性을 살펴보면,

첫째, 100億弗 輸出 一個人所得 1,000弗의 高度經濟成長을 위한 重化學工業中心의 經濟建設이라는 우리의 當面課業完遂를 위하여는 技術開發이 必要不可缺少하고,

둘째, 資本과 資源이 不足하고 國土가 狹少한 우리의 與件下에서 豊富한 人力資源의 活用이야말로 國家目標達成의 關鍵이며,

셋째, 우리 國民生活에 殘存하여 있는 前近代的인 非合理性을 拂拭하고 近代化의 精神的 支柱를 構築하는 일이 緊要하며,

네째, 科學化運動을 통하여 새마을 運動의 相乘的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目標와 理念

그리하여 科學化運動의 目標와 理念은 合理性, 能率性, 創造 및 協同精神을 基調로 하여 國民生活에 殘

全國民의 科學化를 위한

存하고 있는 非合理性을 拂拭하여 生産的이고 進取的인 國民氣風을 振作하고 國家建設에 全國民의 力量을 結集參與하도록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科學化運動의 背景, 理念 그리고 目標 아래 앞으로 展開할 이 運動의 內容과 方向을 說明드리면

內容과 方向

(1) 全國民의 技術 및 技能化促進

첫째 全國民의 技術 및 技能化를 促進하자는 것입니다.

國民이 모두 하나의 技術과 技能을 배우고 익혀 農漁民으로부터 都市民에 이르기까지 各者의 生業을 生産的이고 能率的으로 營爲하게 함은 勿論 이들 國民의 生産의 力量을 國家建設에 集結시켜 우리가 目標로 하는 經濟建設, 福祉國家의 建設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農民은 새로운 營農技術을 익혀 農業의 生産性을 높여 農家所得을 增大하게 하며, 學生들은 基本技能과 技術을 배워 卒業後 優秀한 技術人力으로 生産에 參與할 수 있게 하고, 單純勞動者나 未熟練技能者들을 訓練시켜 生産性 높은 技能人力화하며, 公務員은 行政의 科學化로 能率的이고 生産的이고 生産的인 行政을 遂行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또한 企業家들도 科學과 技術을 알고 새로운 科學的管理技法으로 企業運營의 合理化를 期하고 새로운 技術開發으로써 우리 經濟가 當面한 막중한 課業을 完遂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軍人들도 軍에 服務時 特定技術과 技能을 배워 社會에 復歸할 때 곧 生産人力化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등입니다.

即 모든 國民이 一人一技를 가짐으로써 豊富한 우리 人力을 生産人力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資本 및 資源의 不足, 國土의 狹少, 人口의 過多 등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克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重要한 것은 學校教育이라 하겠습니다. 特히 자라나는 靑少年들의 早期科學技術教育의 強化야말로 가장 重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國民學校에서 大學 및 大學院에 이르기까지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그들에게 認識시켜야 할 것이며, 科學 및 技術教育의 強化를 위하여 教育內容 및 方法, 必要하다면 學制까지도 改編하여야 할 것입니다.

今後 우리 教育의 最大課題는 科學技術教育의 強化에 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產業社會에 對處하기 위한 새로운 價値觀을 形成하는 것이고 새로운 狀況의 適應能力을 培養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Computer의 時代, 自動化, 超高速化의 科學技術時代에 언제까지나 觀念的이고 實踐性이 없는 卓上教育만을 할 수 없음은 너무나 自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科學技術教育의 強調은 새로운 狀況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生産的이고 進取的이며 適應力 높은 人格形成에 寄與하리라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學校教育 이외에도 非進學靑少年, 軍人, 在所者에 이르기까지 職業訓練의 強化를 통한 技能人力을 養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農漁民의 技術習得을 위하여는 새마을 技術指導活動을 積極 推進하여 새마을 工場 農家工產品의 開發, 地方特化產業의 育成 등에 技術的 支援을 強化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家庭의 衣食住生活에 있어서 主役을 맡은 家庭主婦도 生活環境 改善, 營養管理, 衛生管理, 家計管理 등의 科學化를 위하여 實生活 技術을 익히고 이를 生活에 適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國民思考와 生活의 科學化

科學化運動의 또 하나의 重要한 內容은 國民의 思考와 生活을 科學化하자는 것입니다.

周知하시다시피 우리 나라 사람들은 技能을 賤視하는 그릇된 慣習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우리 國民의 思考와 生活 속에는 많은 非合理的인 要素가 아직도 殘存하여 있습니다.

國民의 思考方式과 生活態度가 合理的이고 科學化될 때 우리의 社會는 보다 실속 있고 進取的인 社會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生活에 靑속이 뿌리박은 迷信, 虛禮虛式, 無事安逸한 消極性, 非科學的인 生活因

習等 發展을 阻害하는 要素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要素들을 除去하여 民主國民으로서의 健全한 價値觀을 세우고 社會秩序를 定立하며 國民의 潛在에너지를 國家目標達成에 參與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政府는 教育, 매스콤 등을 通하여 國民生活의 科學化를 促進하고자 努力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國民思考나 生活方式의 改善이란 長期에 걸친 꾸준한 教育, 啓蒙, 指導 위에 이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 계신 全國의 教育者 여러분의 役割은 더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思考나 生活方式은 어리고, 感受性이 銳敏할 때 形成함이 効果的이라고 생각합니다. 學校教育, 家庭教育, 社會教育을 通하여 國民의 思考와 生活方式의 科學化를 위한 一大 캠페인을 展開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學校教育에서는 注入式보다 學生 스스로가 “왜?”하는 疑問心을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하며 解決方案을 스스로 모색하게 하여 어릴 때부터 眞理를 探究하고 創造하는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하겠읍니다.

어린 學生들에게 偉大한 科學者의 傳記를 읽히고 自然의 神秘와 驚異에 눈을 뜨게 하며, 科學技術의 늘라온 힘을 일깨워 주어야 하겠읍니다.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은 一時的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科學者 技術者만이 할 수 있는 運動이 아님을 깊이 認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産業技術의 革新

다음으로 科學化運動의 또 하나의 方向은 産業技術을 革新하자는 運動입니다. 앞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國民이 技術革新에 參與함으로써 經濟發展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努力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企業家는 外國資本이나 技術과 政府의 支援策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開拓者의 精神으로 産業技術을 開發하고 보다 品質 좋고 값싼 製品을 만들어 輸出을 伸張하고 國民經濟發展에 寄與하여야 할것입니다. 農漁民은 새로운 營農 및 造林技術, 漁撈加工技術을 익혀 農漁村의 所得增大와 綠色革命을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리하여 全國土가 産業圈化되어 한 치의 땅도, 어느 한 사람도 늘지 않는 生産하는 나라를 이룩하자는 運動이 科學化運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科學化運動은 汎國民的인 科學技術振興運動이요, 새마을 運動의 發展의 展開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窮極의으로는 民族中興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近代化運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教育者의 使命과 役割

親愛하는 教育者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70年代 우리 나라 科學技術振興方向과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에 對한 概略의인 內容을 말씀드렸고, 科學化運動은 政府의 힘 만으로나 科學技術者의 힘 만으로되는 것이 아니고 汎國民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一大革新事業임을 主張하였습니다.

앞으로 關係部處가 協助하여 이 運動이 나아갈 方向과 細部實行計劃을 確定하고 國民과 協助하여 여러 事業을 展開하여 나가겠지만, 이 運動의 成敗는 亦是 國民이 얼마만큼 能動的으로 參與하고 協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읍니다.

新聞,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매스콤이 國民啓蒙에 앞장서야 할 것은 勿論이나, 가장 核心的인 重要役割을 遂行하여야 할 분들은 바로 여기에 모이신 全國의 教育者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個人 個人이 科學化運動의 旗手임을 自覺하고 國家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要求하기 前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能動的으로 參與하여 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科學化를 위한 教育이야말로 새로운 世代에게 새로운 狀況에 對處할 수 있는 지혜와 能力을 附與하고 새로운 價値觀의 形成위에 世界로 飛躍할 수 있는 民族을 이룩하기 위한 積極的이고 生産的인 教育임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어려운 與件을 克服하고 教育者로서의 使命感과 矜持를 갖고 教育에 專念하여 오셨읍니다.

國家發展의 가장 重要한 발판이 되는 教育받은 豊富한 人材는 바로 여러분들의 꾸준한 努力과 創意에 依

全國民의 科學化를 위한

하여 輩出될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開拓者에게는 많은 苦難과 試鍊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一大轉換點을 맞아야 할 韓國의 教育史에 여러분들이 遂行하고 여러분들이 땀흘려 일한 보람은 오래 오래 남을 것입니다.

70年代 우리의 앞길에는 維新理念으로 굳게 뭉쳐진 國民總和의 힘으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科學技術에 이르기까지 힘찬 成長과 前進이 期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의 참된 精神을 洞察하시고 우리들이야말로 이 運動의 先導者이며 이 運動에 點火役割을 遂行하여야 할 莫重한 使命을 지녔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全國教育者大會를 主管하신 文敎部當局과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深甚한 敬意를 表하며, 이大會를 契機로 全國의 坊坊曲曲에 科學化運動이 燎原의 불길처럼 번져가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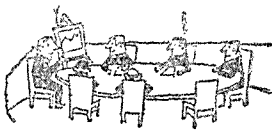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이시고, 여러분의 學校에 무궁한 發展이 있기를 비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感謝합니다.

1973年 3月 22日



세미나르와 심포지움의 差異



책을 한아름 거드랑이에 건學生이 敎授室문을 두드린다. 목소리만 나지막이 들렸던 교수는 문턱에 걸터앉아 파이프로 물고 물끄러미 밖을 내다 보고 있다. 學生은 책과 리포트를 펴 놓고 주어졌던 主題에 대하여 報告를 하기 시작한다. 교수 파이프에 불이 꺼졌다 보다. 학생은 얼른 성냥을 그어댄다. ▲학생은 다시 주뿔주뿔 무어라고 주위섬긴다. 그 건 學者의 의견이지 자네 의견은 아니야! 교수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섬겼던 學生은 다시 무어라고 더듬더듬 쳐꺼리기 시작한다. 그 점은 이렇게 생

각해 보는 것이 어찌나고 이번엔 敎授가 助言을 한다. 지난번 주어진 主題에문에 밤새워 책 몇권을 읽어왔건만 다음 研究課題와 함께 몇가지 책이름이 지정된다. ▲이런것이 세미나르라고 들었다. 라틴語의 세미나리움의 語源이 세미나르의 語源으로 원은 苗板이라는 뜻이자 育成되는 것을 이름이다. 유럽에서는 世紀에 이런 教育方式이 비롯되어 初期에는 神學研究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神學校를 가리키게 되고 大學의 演習에서 나아가 研究室을 부르는 말이 되었다. 어쨌든 敎授의 指導에 의한 學生들의 共同研究 활동을 말하는 것. ▲또 심포지움은 그리스語의 쉼포시아(함께 술마시는 일)와 쉼포지온(饗宴會)에서 라틴語의 심포치움이 된것으

로 애초엔 食後에 音樂 舞蹈 談話를 즐기는 것을 가리켰으나, 플라톤의「對話」에 饗宴篇이라는 것이 있고 보면 知識과 思想을 서로 批判하고 論究하는 모임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를테면 生活이나 學術에 관한 重大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이라도 좋고, 雜誌의 共同討論이라도 좋다. ▲그런 세미나르나 심포지움이 어느새 大學과 긴지한 討論場을 떠나 거리로 흘러나왔다. 이름은 어엿하지만, 主題도 貧困한데다 身邊賢事비슷한 얘기가 오가고 때로는 똥똥지같은 소리가 튀어 나오고 나중에 饗宴만은 꽃이 피는 세미나르와 심포지움, 정작 大學研究室에서는 자취를 감춘 세미나르가 이렇게 大衆民主化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